

3/6/16

설교 제목: 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전도사

말씀: 마태복음 26:31-35, 69-75

(마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 26: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관주] 막 14:30, 눅 22:34

(마 26: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관주] 요 13:37

(마 26: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 26: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 26: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마 26: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마 26: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 26: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마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 26: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작년 프랑스 파리를 피바다로 만들어 전 세계를 경악시킨 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세계 2 차 대전 이후 프랑스가 겪은 최악의 테러 사건입니다.

정확히 2015 년 11 월 13 일 금요일 저녁 9 시 16 분에 바탕클랑 극장을 비롯해 파리 시내 최소 7 곳에서 동시 다발로 일어났고 이 테러로 166 명이 목숨을 잃고 300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테러는 IS (이슬람 국가)가 감행한 것으로 특별히 바타클랑(Bataclan) 극장에서는 미국 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 메탈’의 공연이 열리고 있어 1500 명쯤 되는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 갑자기 복면을 두른 4 명의 테러리스트가 들이닥쳐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진 것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테러범 중 한 명은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면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를 침략해서 무슬림을 해쳤다고 맹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질극도 벌였는데 40-60 명 정도의 인질들을 붙잡고 크리스찬인지, 프랑스 사람인지를 확인한 후 한 명씩 한 명씩 죽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를 타고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만약 그곳에 인질로 잡혀서 테러리스트가 당신은 크리스찬이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고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극장 안에 설치된 CCTV 로 그날 저녁 일어난 일을 다시 돌려보면서 크리스찬인 어떤 사람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부인하고 살아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칩시다.

그 장면을 확인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사실대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죽었어야만 하지 않았냐고 따지며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사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아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은국씨가 1964 년 집필하여 미국에서 20 주 연속 베스트 셀러 자리를 지켰던 소설 '순교자(The Martyred)'를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집필한 것으로 한국 전쟁 중 북한 공산당에 의해 14 명의 목사들이 포로로 잡혀 갔는데 그중 12 명 (평양기독교의 지도자급 인물인 박목사를 포함한)이 처형되었고 2 명 (신목사와 한목사)만이 살아 남은 사실을 가지고 무엇이 그들의 생사를 갈라 놓았는가? 거기에 담긴 진실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950 년 10 월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한 후 정치 정보국은 공산당이 저지른 잔악한 종교적 박해를 전세계에 폭로하기 위해 전후 행적이 묘연해진 목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가 죽은 12 명 목사들을 순교자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육군 방첩대가 평양 비밀 경찰 소속 정소좌를 생포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죽은 목사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순교했다고 생각했던 12 명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동료들을 혈똥으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개처럼 죽었다고 폭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동료들을 배반함으로 그 댓가로 목숨을 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배교자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던 살아 남은 두 명의 목사 한목사와 신목사가 살아남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게 됩니다.

신목사는 끝까지 고문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살려준 것이고, 한목사는 평소 자신이 따랐던 박목사가 마지막 순간 "난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어. 나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에게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라고 외치며 죽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데다가 신목사로부터 그의 신앙의 비밀 곧 자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고백을 들은 후 절망을 견디다 못해 끝내 실성했고 공산당은 미쳐버린 그를 신목사와 함께 풀어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 12 인에 대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정보국은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진실을 외면한 채 원래의 계획대로 이 12 명을 순교자로 추대하고 추모하는 합동 예배를 강행합니다.

여기서 신목사의 행적에 대해 약간 언급해 보겠습니다.

신목사는 처음엔 자신이 12 명의 처형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그곳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교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12 명 목사들의 순교 추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부흥회를 열어서 자신이 배신자라고 참회한 후 죽은 12 명의 목사를 순교자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로서 교인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결국 14 명의 목사 중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 이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한 죄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 먹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비겁한 자, 배신자, 겁장이라는 낙인을 찍을 때마다 저를 향해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저가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동생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단골 양장점 아줌마의 전도로 동생(지금 뉴욕 사는 동생입니다)과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에 나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청주 집에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은 석유 회사와 연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석유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탱크로리라는 기름을 운반하는 큰 트럭이 사람을 쳐서 죽였고 연탄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연이어 2 번씩이나 터지자 어머니가 서울 집으로 올라 오셔서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들 보고 교회 나가지 않느냐고 추궁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사람이 죽었다고 덮어 쓸까봐 무서워 아니라고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저주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장본인입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이 일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 가롯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나를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낸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 모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1. 베드로는 경솔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며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 후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는데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마 26: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 26: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신앙생활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전 10:12 에서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허세를 부리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 2.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마 26: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 26: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 26: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 26: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됩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부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반면 누가복음 22 장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는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종국에 승리를 거머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평소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밤 늦도록 텔레비전 연속극 보느라 안자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난히 새벽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세상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3.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마 26: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마 26: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다리 걸친 겁니다.

유리하면 예수님 쪽으로 붙고 불리하면 도망가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차하면, 내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달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삭빠르고 현명한 처신 같으나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을 주님은 토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만 올인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 4.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하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마 26: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걸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 제사장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고 모의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현장에 그 집 식구인 하인들과 자리 함께 잡고 앉았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세상과 함께 자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세상과 함께 자리했기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수시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이땅에 내려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런 값을 수 없는 큰 은혜 입었음에도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수시로 잊고 사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